

# 李白의 <暮春於江夏送張祖監丞之東都序>와 <奉餞十七翁二十四翁尋桃花源序> 역해

趙成千\* · 趙得昌\*\*

## <목 차>

1. 서 론
2. 본 론
  - 2.1 暮春於江夏送張祖監丞之東都序(늦은 봄 강하에서 낙양가는  
監丞 張承祖를 보내며 쓰노라)
  - 2.2 奉餞十七翁二十四翁尋桃花源序(十七翁과 二十四翁이 도화원  
을 찾아 가는 것을 삼가 전별하면서 쓰노라)
3. 해설 및 결론

## 1. 서 론

현존하는 李白의 散文은 모두 67편(賦 포함)과 <雜題四則>이다.<sup>1)</sup> 그의 산문을 문체로서 보면, 書表序記, 頌讚銘碑, 祭文辭賦이다. 이백의 산문은 그의 삶과 사상을 고증하고, 시를 이해하는데 보조 자료가 되며, 그의 문학사상 및 예술세계를 조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백에 대한 연구는 시 작품에 대한 연구 및 번역에 치중되어, 그의 산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어 학위논문으로는 1997년에 발표된 <李白散文研

\* 乙支大學校 教養學部 助教授(主著者)

\*\* 協成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交信著者)

1) 中華書局的 王琦注 《李太白全集》에는 <比幹碑>와 <雜題四則>이 따로 수록되어 있는데, <比幹碑>는 <全唐文>에서는 李翰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究> 1편에 불과하며, 소논문 역시 희소한 편이며, 특히 연구의 기초가 되는 역해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중국의 경우, 詹鍈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은 校記·注釋으로 괄목할만하지만 국내 연구자들이 참고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이에 필자는 이백 산문 전편을 역해하여, 국내외 이백 연구에 중요 참고자료가 되게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동안 表3편과 書4편 총7편<sup>2)</sup>에 대한 역해연구를 진행하여 완성하였다.

본고에서는 序에 대한 역해연구의 시작으로 <暮春於江夏送張祖監丞之東都序>·<奉餞十七翁二十四翁尋桃花源序> 2편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가 축적되어 결실을 맺는다면, 국내외 이백 산문에 대한 첫 역해 성과가 되고, 이백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원문, 校記, 번역, 註釋, 解說의 형식을 취한다. 원문은 '宋蜀本'을 위주로 하고, 校記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수록하면서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밝힌 것을 추가한다. 번역은 독자해석을 지향하되, 의미의 원활과 순통을 위해서 의역을 한다. 注釋은 자구 풀이는 물론 관련 用例, 典故 등을 들어 그 원문을 제시하고 번역함으로써 학술성을 높인다. 또한 기존 연구를 수용하면서 연구자의 새로운 성과를 추가한다. 解說에서는 창작연대, 작품의 해제, 역대평론, 작품의 특성 및 예술성취 등을 고찰한다.

본 연구는 詹鍈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을 기본으로 하고, 王琦 注 《李太白全集》,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牛寶彤 主編 《李白文選》, 郁賢皓 注譯 《新譯李白文集》 등을 참고로 한다.

2) 表3편: <爲吳王謝賁赴行在遲滯表>·<爲宋中丞請都金陵表>·<爲宋中丞自薦表>, 書4편: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上安州李長史書>·<與賈少公書>·<爲趙宣城與楊右相書>

## 2. 본 론

### 2.1 暮春於江夏送張祖監丞之東都序(늦은 봄 강하에서 낙양가는 監丞 張承祖를 보내며 쓰노라)<sup>3)</sup>

#### 2.1.1 아! 아! 제가 서재에 앉아 근심한지도

籲咄哉,<sup>4)</sup> 僕書室坐愁, 亦已久矣. 每思欲遐登蓬萊,<sup>5)</sup> 極目四海,<sup>6)</sup> 手弄白日, 頂摩青穹,<sup>7)</sup> 揮斥幽憤,<sup>8)</sup> 不可得也. 而金骨未變,<sup>9)</sup> 玉顏已緇,<sup>10)</sup> 何常不捫松傷心,<sup>11)</sup> 撫鶴歎息. 誤學書劍,<sup>12)</sup> 薄遊人間.<sup>13)</sup> 紫微九重,<sup>14)</sup> 碧山萬裏. 有才無命,

3) 江夏: 지명, 지금의 湖北省 武漢市를 말한다. ○張祖: 《唐文粹》에 따르면 張承祖가 되어야 한다.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이하 《校注》로 약칭)에서 “권18에 <江夏送張丞>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인 것 같다. 《舊唐書·職官志》에 의거하면, 여러 監에는 모두 監丞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이하 《集評》으로 약칭)에서는 “고찰컨대, 張祖는 인명과 유사하지 않고, 張祖監 또한 인명과 유사하지 않으니, 마땅히 《文粹》에서 張承祖라고 되어 있는 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였다. ○東都: 낙양을 말한다.

4) 籲咄哉: 감탄사를 연용하여 어기를 강화시켰다.

5) 蓬萊: 고대 전설의 삼신산(蓬萊山·方丈山·瀛洲山) 가운데 하나로 신선이 거처하는 곳이다.

6) 極目: 시력이 미치는 데까지 보는 것을 말한다.

7) 頂摩青穹: 머리가 하늘에 닿다. ○摩: 접근하다. 가까이 다가간다. ○青穹: 푸른 하늘.

8) 揮斥: 자유롭게 하다. 《莊子·田子方》에 “무릇 至人은 위로는 푸른 하늘을 엿보고 아래로는 황천 속에 잠기며 우주의 팔방 끝까지를 자유로이 날아다니면서도 神氣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夫至人者, 上闕青天, 下潛黃泉, 揮斥八極, 神氣不變).”에 그 용례가 있다. ○幽憤: 가슴에 맺힌 울분. 《後漢書·崔駰列傳》에 “이는 賈誼가 絳侯인 周勃과 穎陰侯인 灌嬰에게 배척된 것이, 屈原이 그 울분을 펼치게 된 바와 같다(斯賈生之所以排於絳·灌, 屈子之所以搥其幽憤者也.)”에 그 용례가 있다.

9) 金骨: 도교에서 약을 복용하고서 뼈를 연마하는 것을 말한다. 신선이 되는 것을 말한다. “金骨未變”은 신선술을 연마하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10) 緇: 검은 색. “玉顏已緇”은 청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말한다.

11) 捫: 어루만지다, 쓰다듬다.

12) 書劍: 書와 劍으로 옛날에 士인이 휴대하던 물건. 또한 문장을 익히고 무예를 배우는 것을 말한다. 즉 “독서하여 관리가 되고 무예를 익혀 功業을 세우다”의 뜻이다.

13) 薄遊: 薄游로도 쓴다. 박봉을 위해 관직을 구하러 외지로 나아가다. 晉 夏侯湛의 《東方朔

甘於後時.<sup>15)</sup> 劉表不用於禰衡,<sup>16)</sup> 暫來江夏; 賀循喜逢於張翰,<sup>17)</sup> 且樂船中.<sup>18)</sup>

畫贊》序 “혼탁한 세상에서는 부귀해서는 안 되니, 박봉을 위해 외지로 나가 자리를 구한다(以爲濁世不可以富貴也, 故薄遊以取位.)”에 그 용례가 있다. 《集評》에서는 “薄遊는 小遊의 뜻이다(薄遊, 小遊也.)”라고 하였고, 牛寶形 主編 《李白文選》(北京: 學苑出版社, 1989)에서는 “薄遊人間은 인간세상에서 왕래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薄은 동사 앞에 오는 말이다(薄遊人間, 指在人間世間往來, 薄, 動詞詞頭.)”라고 하였다.

- 14) 紫微: 천자의 궁전. 紫微에 대해 王琦는 “紫微는 천자가 거처하는 궁궐로 하늘의 자미원(인용자주: 紫微垣, 큰곰자리를 중심으로 170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 太微垣, 天市垣과 더불어 三垣이라 함. 天帝가 있는 곳)을 모방하여 이름하였다(紫微, 天子所居之宮, 以擬天之紫微垣而名.)”라고 주를 달았다. ○九重: 천자가 거처하는 곳을 말하며, 그 깊고 고요함을 지극하게 말한 것이다.
- 15) 後時: 시기, 제때를 잃다. 시기, 시간에 미치지 못하다. 《楚辭·賈誼》 “고니가 좋은 때를 잃고 머무르니, 올빼미가 무리지어 공격하고(黃鵠後時而寄處兮, 鷗臯群而制之.)”에 그 용례가 있다.
- 16) 劉表不用於禰衡: 유표가 예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後漢書·禰衡傳》에 의거하면, 예형은 漢代 말기 문학가로 문재가 있어서 문장을 잘 썼지만, 천성적으로 오만하였다. 조조가 예형에 대해 듣고는 그를 만나고자 하였지만, 예형은 병을 핑계로 가기를 원치 않았다. 나중에 조조가 鼓吏(인용자주: 북 치는 관리)로 임명하였다. 한 번은 조조가 빈객들에게 큰 연회를 베푸는 자리에서 예형에게 모욕을 주려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도리어 예형에게 모욕을 받았다. 조조는 단숨에 그를 荊州牧 劉表에게 보냈다. 유표도 똑같이 예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또 江夏 태수 黃祖에게 보냈는데, 결국 황조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安旗는 “劉表不用於禰衡, 暫來江夏는 이백 스스로 자신을 예형에 비유한 것이고 漢나라 때 荊州牧인 유표는 韓朝宗을 가리킨다. 이 말은 韓朝宗에게 자신의 천거를 부탁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서 江夏에 이른 것을 말한 것이다.”(《李白年譜》)라고 하였다. 이백은 《與韓荊州書》를 써서 韓朝宗에게 자신을 천거해주도록 부탁하였지만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보면, 예형은 이백을, 유표는 韓朝宗을 비유한다.
- 17) 賀循喜逢於張翰: 하순이 장한을 만난 것을 기뻐하다. ○賀循: 생졸연대는 260년—319년. 자가 彥先, 會稽山陰(지금의 浙江紹興)사람이다. 兩晉시기의 명신으로 東吳 中書令 賀邵의 아들이다. 하순은 일찍이 명성이 있어서 紀瞻·閔鴻·顧榮·薛兼과 더불어 五俊으로 불리었다. 처음에 五官掾·陽羨縣令·武康縣令·太子舍人 등의 관직을 맡았다. 지방임지에서 자못 공적을 쌓았다. 나중에 은퇴하여 會稽에 머물렀는데, 石冰의 亂을 토벌하는데 참여하였다. 또 반란장수 陳敏의 상을 거절하였다. 琅玕王 司馬睿(晉帝)가 建業에 지방장관으로 나간 뒤에, 하순이 초대되어 吳國內史·軍諮祭酒·太常 등의 관직을 담당하여 조정의 의례에 기여를 하였다. ○張翰: 西晉의 문학가로 자는 季鷹. 그의 부친은 三國 孫吳의 大鴻臚(관직명) 張儼이다. 吳郡 吳縣(지금의 江蘇蘇州)사람이다. 생졸년은 미상이다. 그는 격식과 틀을 싫어하고 거리낌 없고 자유분방하여 당시 사람들은 그를 阮籍에 견주어 江東步兵이라 하였다. 하순과 장한 두 사람은 낙양으로 가는 도중의 배 위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 《晉書·張翰傳》에 그 내용이 있다. “회계 사람 賀循이 명을 받아 낙양으로 직무를 수행하러 가는 도중에 오 지역 閭門을 지나며 배에서 비파를 연주하였다. 張翰이 처음에 하순을 알지 못하였는데, 하순에게 다가가 말을 나누자, 두 사람이 서로를 대단히 호모하였다.(會稽賀循, 赴命入洛, 經吳閭門, 於船中彈琴. 翰初不相識, 乃就循言談, 便大相欽悅.)” 문장에서는 하순은 이백을 장한은 張承祖를 비유한다.
- 18) 且樂船中: 또한 배 안에서 즐거워하다. 이는 이백이 장승조를 배 안에서 만난 것을 나타낸 것이다.

<校記>

[제목]: 宋蜀本目錄은 ‘暮春’ 아래에 ‘於’ 한 글자가 더 있다.

[已編]: ‘已’자가 文粹<sup>19)</sup>에서는 ‘以’로 되어 있는데, 詹鐸은 잘 못된 것이라고 한다.

[紫微]: ‘微’가 全唐文<sup>20)</sup>에서는 ‘禁’으로 되어 있다.

[用於]: ‘於’가 劉本<sup>21)</sup>에서는 ‘乎’로 되어 있다.

아! 아! 제가 서재에 앉아 근심한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매번 생각하기에, 저 먼 봉래산에 올라 천하를 눈 닿는 데까지 바라보고 손으로는 해를 만지작거리며, 머리로는 하늘까지 닿게 하여 가슴에 맺힌 울분을 자유롭게 풀고자 하였지만 이를 수 없었습니다. 신선술을 연마하였지만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얼굴은 이미 희고 아름다운 색깔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찌 항상 소나무를 붙잡고 상심하지 않았으며, 학을 어루만지며 탄식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장과 무예를 잘못 배워 인간세상에서 노닐게 되었습니다. 천자의 궁전은 구중심처에 있고 푸른 산은 만 리에 있어 재주는 있지만 시운이 없으니, 시대가 맞지 않은 것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劉表는 禰衡을 받아들이지 않아 잠시 江夏로 왔지만, 賀循은 張翰을 만나 기뻐하고 또한 배 안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2.1.2 세상 이치를 통달한 張承祖를 만나니

達人張侯,<sup>22)</sup> 大雅君子,<sup>23)</sup> 統泛舟之役,<sup>24)</sup> 在清川之湄. 談玄賦詩, 連輿數

19) 《四部叢刊》에서 영인한 明 嘉靖本《唐文粹》.

20) 中華書局에서 영인한 清 禦製《全唐文》.

21) 明萬曆40年(서기 1612년) 劉世教의 《合刻分體李杜全集》중 《李翰林全集》 42卷.

22) 達人: 達人에 대해 《集評》에서는 “사리에 통달하며 덕에 밝고 의리를 변별할 줄 하는 사람(通達事理, 明德辨義之人.)”이라 하였고, 《李白文選》에서는 “마음이 열리고 넓은 사람(心胸開闊)”이라 하였다.

23) 大雅: 大雅에 대해 《集評》에서는 “바르고 좋은 덕이 있는 자, 재덕이 고상한 자에 대한 찬사(正而有美德者, 對才德高尚者的贊詞.)”라 하였고, 《李白文選》에서는 “大雅는 큰 재주, 높은 재주이다(大雅, 大才, 高才.)”라고 하였다. 班固의 <西都賦>에 “재주와 덕이 고상한 사람이 이곳에 모여 무리를 이루었다(大雅宏達, 於茲爲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月, 醉盡花柳, 賞窮江山. 國祖有程,<sup>25)</sup> 告以行邁,<sup>26)</sup> 煙景晚色, 慘爲愁容. 繫飛帆於半天, 泛淥水於遙海. 欲去不忍, 更開芳樽,<sup>27)</sup> 樂雖寔中,<sup>28)</sup> 趣逸天半.<sup>29)</sup> 平生酣暢,<sup>30)</sup> 未若此筵.<sup>31)</sup> 至於清談浩歌,<sup>32)</sup> 雄筆麗藻,<sup>33)</sup> 笑飲醪酒,<sup>34)</sup> 醉揮素琴,<sup>35)</sup> 餘實不愧於古人也.

<校記>

[行邁]: ‘行’이 文粹와 全唐文에는 ‘於’로 되어 있다.

[淥水]: ‘淥’이 咸本<sup>36)</sup>에는 ‘綠’으로 되어 있다.

[不忍]: 文粹와 全唐文에는 ‘不去’로 되어 있다.

[天半]: 咸本에서는 ‘半’에 대하여 “어떤 곳에는 外로 되어있다(一作外)”라고 하였다. 全唐文에는 ‘外’로 되어 있다.

[此筵]: ‘筵’이 全唐文에서는 ‘時’로 되어 있다.

에 대해 李善은 “大雅는 재주가 높고 큰 재주가 있는 사람을 이른다. 《시경》에 <대아> 편이 있기 때문에 이로써 일컬은 것이다(大雅謂有大雅之才者, 《詩》有《大雅》, 故以立稱焉.)”라고 주를 달았다.

- 24) 統: 이괄다. 통솔하다. ○泛舟之役: 곡식 운반선이 강을 뺨뺨이 메운 대역사. 魯 僖公13년(BC 647년)에 쑤나라에서 기아가 발생하자, 秦나라에 구조를 요청했다. 秦나라의 곡식 운반선이 雍에서 絳에 이르기 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를 ‘泛舟之役’이라 한다.(이상은 《左傳·僖十三年》에 나옴) 문장에서는 이를 빌어 張監쑤이 漕運의 임무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였다.
- 25) 國祖有程: 국가 조세의 운반에는 일정한 기한이 있다. 이 말은 “王命有程”으로 된 경우도 있다. 唐 武德2년(619) 초에 租·庸·調법을 제정하였다. ○國祖: 國祖로 되어야 한다. ○有程: 정해진 일정, 즉 기한을 정하여 보내다의 뜻이다.
- 26) 行邁: 가다. 《詩經·王風·黍離》의 “가는 길 머뭇머뭇 더디고,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리네(行邁靡靡, 中心搖搖.)”에 그 용례가 있다.
- 27) 芳樽: 향기를 발산하는 술통.
- 28) 寔中: 천하.
- 29) 逸: 초월 ○天半: 높은 하늘, 먼 하늘 저 밖.
- 30) 酣暢: 술을 마시며 흥을 다하다.
- 31) 未若: ~와 같지 않다. ~보다 못하다.
- 32) 浩歌: 소리 질러 노래하다.
- 33) 麗藻: 아름다운 文辭.
- 34) 醪酒: 맛있는 술, 특히 醪醕을 가리킨다.
- 35) 素琴: 장식을 하지 않은 비파.
- 36) 明鮑松이 編한 正德八年(서기 1513년) 自刻本 《李杜全集》 83권 중의 《李翰林集》 30卷.

[浩歌]: 陸本<sup>37)</sup>에는 ‘浩가 ‘皓’로 되어 있다. 何校陸本<sup>38)</sup>에서는 ‘皓’를 ‘浩’으로 고쳐 놓았다.

[不愧]: ‘愧’는 全唐文에는 ‘媿’로 되어 있다.

세상 이치를 통달한 張承祖를 만나니 재덕이 훌륭하신 군자로서 낙양으로 곡식을 운반하는 일을 통솔하시느라, 맑은 강 물가에 계시는구나. 현리를 담론하고 시를 지으니 여러 달 동안 흥취가 이어져 꽃과 버들에 흠뻑 취해 강산을 자세히 감상하시네. 국가 조세의 운반에는 일정한 기한이 있어 운반하는 과정을 보고하는데, 물안개 낀 풍경에 저녁 빛으로 물들어 가니, 애처롭게 근심스런 얼굴이 되시는구나. 날아가는 듯한 돛배를 하늘 중간에 매어 두었다가 바다 저 멀리 맑은 물에 띄우시노라. 떠나려 해도 차마 떠날 수 없어, 다시 향기 좋은 술 단지 여니, 즐거움이 비록 인간 세상에 있다하더라도 그 풍취는 하늘 밖을 뛰어넘으리라. 평생 술 마시고 흥겨운 것은 이 송별연이 최고일 것이다. 청아한 이야기와 큰 노래 소리, 뛰어난 글씨로 아름다운 시문을 짓고, 웃으며 맛있는 술 마시고, 취하여 장식하지 않는 비파를 타는데 이르러서, 저는 사실 옛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 2.1.3 웃소매 올려 멀리 이별하면

揚袂遠別,<sup>39)</sup> 何時歸來, 想洛陽之秋風, 將膾魚以相待.<sup>40)</sup> 詩可贈遠, 無乃闕

37) 明 正德14年(서기 1519년)에 陸元다가 간행한 《李翰林集》 10卷.

38) 淸의 何焯가 陸元다가 간행한 《李翰林集》 10卷에 교주하고 跋을 쓴 책.

39) 揚袂: 소매를 올린다.

40) 想洛陽之秋風, 將膾魚以相待: 낙양에 가을바람 불어 고향이 생각나 오신다면, 저는 농어회로 대접할 것입니다. 《晉書·張翰傳》에 의거하면, 齊王 罔이 장한을 大司馬東曹掾로 임명하여, 장한은 洛陽에서 벼슬살이를 하였는데, 제왕에게 위기가 닥쳐 결국 패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마침 가을바람이 일자 고향 吳中の 채소·순채국·농어회가 그리워졌다. 이에 “사람으로 태어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귀한 것인데, 어찌하여 수 천리 떨어진 곳에서 머물며 벼슬하면서 명예와 직위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人生貴得適志, 何能羈宦數千里以要名爵乎!)”라고 하면서, 곧바로 고향에 돌아갔다. 결국, 얼마 되지 않아 제왕은 패하였다. 문장에서 張承祖를 장한에 비유한 것이다. ○膾魚: 농어. 鱖魚라고도 한다.



乎?41)

<校記>

[將膾魚]: ‘膾’는 郭本<sup>42)</sup> · 全唐文에는 ‘鱠’으로 되어 있고, 文粹에서는 ‘膾魚’가 ‘鱠伊魚’로 되어 있다.

웃소매 올려 멀리 이별하면, 어느 때나 돌아오시려나? 낙양에 가을바람 불어 고향이 생각나 오신다면, 저는 농어회로 대접할 것입니다. 詩는 멀리 떠나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니, 아무래도 빠질 수는 없겠지요?

## 2.2 奉餞十七翁二十四翁尋桃花源序(十七翁과 二十四翁이 도화원을 찾아 가는 것을 삼가 전별하면서 쓰노라)<sup>43)</sup>

### 2.2.1 일찍이 祖龍인 진시황은 옛 습속을 없애고

昔祖龍滅古道,<sup>44)</sup> 嚴威刑,<sup>45)</sup> 煎熬生人,<sup>46)</sup> 若墜大火. 三墳五典, 散爲寒

41) 無乃: 어찌 아니겠는가.

42) 《四部叢刊》을 영인한 郭雲鵬의 《分類補注李太白詩》 30卷.

43) 奉: 상대방에 대한 높임말. 삼가. ○十七翁二十四翁: 十七翁과 二十四翁으로 이름은 未詳이다. ○桃花源: 陶淵明的 《桃花源記》로부터 기원한 지명으로, 《桃花源記》에 따르면 武陵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武陵이 어디에 소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역대로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현재 지금의 湖南省 常德市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도화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으며, 그것은 사람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다.

44) 祖龍: 진시황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史記·秦始皇本紀》에 있는데, “36년, …… 가을, 사자가 함곡관 동쪽으로 부터 밤에 화음평서도를 지나고 있었다. 누군가가 구슬을 가지고 사자를 막아서서는 말했다. ‘저를 대신하여 호지군(인용자주: 水神)에게 전해주십시오.’ 이어 말하였다. ‘올해는 조룡(인용자주: 진시황)이 죽습니다.’ 사자가 그 이유를 묻자, 갑자기 사라졌는데, 구슬을 두고 갔다. 사자는 그 구슬을 바치며 날날이 아뢰었다. 진시황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하였다. ‘산귀신은 원래 일 년치 일밖에 모른다.’ 그리고 물러나며 말하였다. ‘조룡이란 것은 사람의 조상일 뿐이다.’ 어부를 시켜 구슬을 살피게 하니, 바로 진시황 28년에 강을 건너다 빠뜨린 구슬이었다(三十六年, ……秋, 使者從關東夜過華陰平舒道. 有人持璧遮使者曰, ‘爲吾遺鑄池君.’ 因言曰: ‘今年祖龍死.’ 使者問其故, 因忽不見, 置其璧去. 使者奉璧具以聞. 始皇默然良久, 曰, ‘山鬼固不過知一歲事也’ 退言曰, ‘祖龍



灰.47) 築長城, 48) 建阿房, 49) 并諸侯, 殺豪俊, 50) 自謂功高義皇, 51) 國可萬世. 52)

者, 人之先也. '使禦府視壁, 乃二十八年行渡江所沈壁也.)'라고 하였고, 이에 《史記集解》에서는 또한 "소림이 말하였다. '祖는 시작이다. 龍은 임금의 모습으로, 시황을 일컫는다'(蘇林曰: '祖, 始也. 龍, 人君象, 謂始皇也.')"라고 하였다. ○古道: 상고시대의 문화전통, 풍속습관

- 45) 嚴威刑: 형벌을 엄하게 하고 가혹하게 하다.
- 46) 煎煎: 시달리게 하다. 《楚辭·九思·怨上》의 "내 마음이어 시달리고 있구나. 이 때문에 애통하네(我心兮煎煎, 惟是兮用憂.)"에 그 용례가 있다. ○生人: 生民을 말한다. 당나라 때는 당태종李世民的 民자를 피휘해야 했기 때문에 民을 人으로 바꾸어서 나타내었다.
- 47) 三墳五典, 散爲寒灰: 삼분, 오전의 고서들은 불타 차가운 재가 되었다. ○三墳五典: 古書 명칭. 여기에서는 책 종류를 말한다. 孔安國은 《尚書·序》에서 "伏羲, 神農, 黃帝의 책을 일컬어 三墳이라고 하는데, 대도를 말한 것이다. 少昊, 顓頊, 高辛, 唐, 虞의 책을 일컬어 五典이라고 한다(伏羲·神農·黃帝之書, 謂之三墳, 言大道也; 少昊·顓頊·高辛·唐·虞之書, 謂之五典也.)"라고 하였다. 《左傳》 昭公十二年의 "三墳, 五典, 八索, 九丘 책을 이해할 수 있다(是能讀三墳五典八索九丘.)"의 注에 "모두 고서명이다(皆古書名.)"라고 하였다. 이 두 구와 관련된 내용이 《史記·秦始皇本紀》에 있다. "승상 이사가 말하였다. '……신은 청하옵니다. 사관에게 秦이 기록한 것이 아닌 것은 모두 태워버리게 하시고, 博士官에서 관장하는 책을 제외하고 천하에 감히 깊이 간직되어 있는 《詩》, 《書》 및 제자백가의 책들을 지방관인 守와 尉 등에게 모두 보내어 태우게 하십시오. 감히 돌이켜 《시》, 《서》를 이야기하는 자가 있으면 저잣거리에서 사형을 시키시고, 옛것을 가지고 지금을 비난하는 자들은 모두 멸족을 시키십시오. 관리 중에 이러한 것을 보고 알았지만 검거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같은 죄로 다스리십시오. 명령을 내린 지 30일이 되었는데도 책들을 태우지 않는 자가 있으면 黥刑(인용자주: 죄인의 이마나 팔뚝 따위에 먹줄로 죄명을 써 넣던 형벌로 墨刑이라고도 함)으로 처벌하고, 城旦刑(인용자주: 장성을 쌓는 강제 노역)에 복역하게 하십시오. 없애버리지 않을 책은 의약, 점복 및 나무재배와 관련된 책뿐입니다. 만약에 법령을 배우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관리를 스승으로 삼게 하십시오.' 진시황이 명을 내려서 말하기를 '종소'라고 하였다(丞相李斯曰: '……臣請史官非秦記皆燒之. 非博士官所職, 天下敢有藏詩書·百家語者, 悉詣守·尉雜燒之. 有敢偶語詩書者棄市. 以古非今者族. 吏見知不舉者與同罪. 令下三十日不燒, 黥爲城旦. 所不去者, 醫藥蔔筮種樹之書. 若欲有學法令, 以吏爲師.' 制曰: '可.')
- 48) 築長城: 장성을 축조하다. 진시황 34년에 대장 蒙恬을 파견하여 장성을 축조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賈誼의 <過秦論>에 있다. "이에 (진시황은) 몽염을 시켜 북쪽에 장성을 쌓아 경계를 지키게 하고, 흉노를 7백 여리나 퇴각시켰다. 흉노들은 감히 남쪽으로 내려 와서 말을 방목하지 못하였고, 군사들은 감히 활을 잡아당겨 원한을 갚으려고 하지 못하였다(乃使蒙恬北築長城而守藩籬, 卻匈奴七百余里, 胡人不敢南下而牧馬, 士不敢彎弓而報怨.)"
- 49) 建阿房: 아방궁을 만들다. 이와 관련하여 《史記·秦始皇本紀》 35년에서 "이에 궁전을 위수의 남쪽 上林苑 가운뎃에 지었다. 먼저 前殿인 阿房을 지었다. 동서의 길이가 500보였고 남북의 길이는 50丈이었는데, 위에 만 명이 앉을 수 있고, 아래에는 5丈 길이의 깃발을 세울 수 있었다. 사방에 구름다리를 조성하여 궁전 아래에서 南山까지 바로 통하게 하였고, 남산의 정상에 표지로 삼는 闕樓를 만들었다. 또 구름다리를 만들어 아방으로 부터 위수를 건너서 그것을 함양에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북극성, 關道星이 은하수를 지나 營室星까지 이르는 형태를 본떴다. 아방궁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되면 좋은 이름을 골라 명명하려고 하였다. 아방에 궁전을 만들었기에 천하 사람들이 그것을 아방궁이라고 일컬

思欲凌雲氣,<sup>53)</sup> 求仙人, 登封太山,<sup>54)</sup> 風雨暴作. 雖五松受職,<sup>55)</sup> 草木有知, 而萬

었다(乃營作朝宮渭南上林苑中. 先作前殿阿房, 東西五百步, 南北五十丈, 上可坐萬人, 下可以建五丈旗. 周馳爲閣道, 自殿下直抵南山. 表南山之巔以爲闕. 爲復道, 自阿房渡渭, 屬之鹹陽, 以象天極, 閣道絕漢, 抵營室也. 阿房宮未成; 成, 欲更擇命名之名之. 作宮阿房, 故天下謂之阿房宮.)"라고 하였고, 《史記正義》에서는 "《括地志》에서 말했다. '진나라의 아방궁은 또한 아성이라고 한다. 雍州 長安縣에서 서북쪽으로 14리 되는 곳에 있다.' 생각건대 궁이 上林苑 가운데 있다는 것은 雍州 외성의 서남쪽이 바로 아방궁성의 동쪽이라는 것이다. 안사고가 말했다. '아는 가깝다 이다. 그것이 함양에서 떨어진 것이 가깝다는 뜻으로, 잠시나마 아방이라고 불렀다.'(《括地志》云: '秦阿房宮亦曰阿城. 在雍州長安縣西北一十四裏.' 按: 宮在上林苑中, 雍州郭城西南面, 卽阿房宮城東面也. 顏師古云'阿, 近也. 以其去咸陽近, 且號阿房.')

라고 하였으며, 《三輔皇圖》에서는 "아방궁은 또한 아성이라고 한다. 혜문왕이 건조하였는데, 궁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죽었다. 진시황이 그 궁을 넓혔는데, 3백여리를 더 넓히도록 계획하였다……(阿房宮亦曰阿城, 惠文王造, 宮未成而亡. 始皇廣其宮, 規恢三百餘裏…….)"라고 하였다.

50) 殺豪俊: 영웅호걸을 살육하다. 豪俊은 영웅호걸. 山東 6국의 영웅호걸들을 살육한 것을 가리킨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賈誼의 <過秦論>에 있다. "진시황에 다다르자, 육대가 남긴 업적을 이어, 긴 채찍을 들어 휘두르며 천하를 제압하고, 서주 및 동주를 병탄하고 제후들을 멸망시키고 나서, 지극히 존귀한 황제의 자리에 올라 천하를 제압하고, 몽둥이와 칼자루를 손에 쥐고 천하 사람들을 매질하여, 그 위엄이 온 천하에 떨치게 되었다.……그리하여 (진시황은) 선왕의 법도를 없애고, 제자백가의 책들을 불살라,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었으며, 유명한 성들을 부수고, 영웅호걸들을 살육하였다. ……천하가 이미 평정되자, 진시황은 마음속으로 關中의 굳건함이 천리에 이르는 철옹성과 같아, 자손들이 만대에 걸쳐 제왕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틀이라고 생각했다(及至秦王, 續六世之餘烈, 振長策而禦宇內, 吞二周而亡諸侯, 履至尊而制六合, 執槌拊以鞭笞天下, 威振四海. ……於是廢先王之道, 焚百家之言, 以愚黔首, 墮名城, 殺豪俊, ……天下已定, 秦王之心, 自以爲關中之固, 金城千里, 子孫帝王萬世之業也.)"

51) 義皇: 伏羲氏. 《文選》 권48 揚雄 <劇秦美新>의 "멀리로는 복희씨보다 현달한 사람이 없었고, 가운데로는 虞땅에 거할 때보다 성한 때가 없었고, 가까이로는 낙양보다 훌륭한 곳이 없었다(上罔顯於義皇, 中莫盛於居虞, 邇靡著於成周.)"에 그 용례가 있는데, 여기에 李善이 "복희가 삼황이 되었기에 義皇이라고 한다(伏羲爲三皇, 故曰義皇.)"라고 주를 달았다.

52) 國可萬世: 나라가 만세토록 영원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史記·秦始皇本紀》 26년에 있다. "진시황이 말했다. '짐이 듣자니 太古에는 號는 있었지만 시호는 없었고, 中古에는 호만 있었고 죽은 후에는 살아 있을 때의 행적에 따라 시호를 정했다고 한다. 이와 같다면 자식이 아버지를 의론하고, 신하가 임금을 의론하는 것과 같다. 이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니, 짐은 이러한 것을 취하지 않겠노라. 지금부터 시호를 정하는 법을 없애겠다. 짐은 始皇帝라고 칭하겠다. 후대는 수를 세는 것으로 하여 二世, 三世라고 하여 萬世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전하지도록 하라(制曰: 朕聞太古有號毋諡, 中古有號, 死而以行爲諡. 如此, 則子議父, 臣議君也. 甚無謂, 朕弗取焉. 自今已來, 除諡法, 朕爲始皇帝. 後世以計數, 二世·三世至於萬世, 傳之無窮.)"

53) 凌: 오르다. ○雲氣: 운무. 구름과 안개.

54) 封: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참고로 땅에 제사를 지내다는 禘이다.

55) 雖五松受職: 비록 다섯 소나무가 (진시황이 비바람을 피하도록 하여) 직위를 얻었다 해도. 이와 관련하여 《史記·秦始皇本紀》 28년에서 "그리고 드디어 태산에 올라 비석을 세우고, 단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 지냈다. 산에서 내려올 때, 홀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나무

象乖度,<sup>56)</sup> 禮刑將弛,<sup>57)</sup> 則綺皓不得不遁於南山,<sup>58)</sup> 魯連不得不蹈於東海.<sup>59)</sup> 則桃花源之避世者, 可謂超升先覺.<sup>60)</sup> 夫指鹿之儔,<sup>61)</sup> 連頸而同死, 非吾黨之謂乎?<sup>62)</sup>

아래서 쉬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그 나무를 五大夫로 봉하였다(乃遂上泰山, 立石, 封, 祠祀. 下, 風雨暴至, 休於樹下, 因封其樹爲五大夫.)"라고 하였고, 《獨異志》 卷中에서는 "진시황 28년 태산에 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중간쯤 내려 왔을 때, 갑자기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천둥과 우레가 내리 쳤다. 길가에 소나무 다섯 그루가 있었는데, 그들이 땅을 넓게 가리고 있어, 이에 五大夫로 봉하였다. 갑자기 소나무 위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道와 德도 없고, 仁과 禮도 없으면서 천하에서 왕 노릇하며 제멋대로 명을 내리는데, 그런 帝가 어떻게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말인가?' 측근들이 모두 들었고, 진시황은 불쾌하였다. 그리고 돌아와서, 사구에서 봉어하였다(始皇二十八年, 登封太山, 至半, 忽大風雷雨電, 路旁有五松樹, 蔭翳數畝, 乃封爲五大夫. 忽聞松上有人言曰: '無道德, 無仁禮, 而王天下妄命, 帝何以封!') 左右咸聞, 始皇不樂, 乃歸, 崩於沙丘.)"라고 하였다.

56) 萬象: 도가의 용어로서 우주 간의 모든 사물 혹은 현상.

57) 禮刑: 예의와 형벌. ○將: 또한

58) 綺皓: 진나라 말 한나라 초의 네 명의 은사인 商山四皓(東園公(唐宣明)·甯里公(周術)·鄆鄆公(綺里季)·夏黃公(崔黃))를 말한다. 그들은 秦나라 말에 商山에 은거하였다. 《史記·留侯世家》에 그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연회가 열릴 때에, 술자리가 마련되고 태자가 황제를 모셨다. 이 때 네 사람이 태자를 따르고 있었다. 모두 나이가 여든을 넘었고, 수염과 눈썹이 희었으며, 의관이 매우 의젓하였다. 황제가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여 물어 보았다. '저들은 무엇 하는 사람들이오?' 그러자 네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 아뢰며 각자 이름을 말하기를 東園公·甯里先生·綺里季·夏黃公이라고 하였다(及燕, 置酒, 太子侍. 四人前對, 各言名姓. 曰東園公, 甯里先生, 綺里季, 夏黃公.)" ○南山: 商山을 가리킨다. 지금 陝西省 商洛市 丹鳳縣 商嶺에 있다.

59) 魯連不得不蹈於東海: 魯仲連은 동해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魯連: 魯仲連. 이와 관련된 내용이 《戰國策·趙策三》의 <魯仲連義不帝秦>에 있다. "저 진나라는 예의를 버리고 적군의 머리를 벤 공만 추켜세우는 나라입니다. 간사한 수단으로 병사들을 부리고, 백성들을 노예 부리듯 합니다. 저 진나라는 마음대로 황제라고 칭하고, 허물을 지으며 나아가 천하를 주름잡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 連은 동해로 가서 죽으려고 합니다. 저는 차마 그들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군을 뵈고자 한 이유는 조나라를 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彼秦者, 棄禮義而上首功之國也, 權使其士, 虜使其民; 彼則肆然而爲帝, 過而遂正於天下, 則連有赴東海而死矣, 吾不忍爲之民也. 所爲見將軍者, 欲以助趙也.)"

60) 超升: 도교의 용어로서 득도하여 신선이 되어 천계로 올라감을 말한다.

61) 指鹿之儔: 진실을 말하는 정직한 선비. 이와 관련된 내용이 《史記·秦始皇本紀》 秦二世三年에 있다. "조고는 난을 일으키고자 했지만 못 신하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까 걱정 되었다. 그래서 먼저 시험해보고자 사슴을 끌고 와서 이세(二世)에게 바치며 말하기를 '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세는 웃으며 '승상은 잘 못 안 게 아니오? 사슴을 말이라고 하다니 오'라고 말하고는 주변의 신하들에게 물으니, 어떤 신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어떤 신하는 말이라고 하며 조고에게 아부하였다. 어떤 신하는 사슴이라고 말하였는데, 조고가 몰래 사슴이라고 말한 신하를 법으로 징벌하였다. 이 이후로 못 신하들은 모두 조고를 두려워 하였다(趙高欲爲亂, 恐群臣不聽, 乃先設驗, 持鹿獻於二世, 曰: '馬也.' 二世笑曰: '丞相誤邪? 謂鹿爲馬.' 問左右, 左右或默, 或言馬以阿順趙高, 或言鹿(者), 高因陰中諸言鹿者以法, 後群臣皆畏高.)"

## &lt;校記&gt;

[제목]: ‘桃花源’이 文粹에서는 ‘桃源’으로 되어 있다.

[嚴威刑]: 全唐文에서는 ‘威嚴刑’으로 되어 있다.

[建阿房]: ‘建’이 文粹와 全唐文에서 ‘起’로 되어 있다.

[太山]: ‘太’가 文粹와 全唐文에서 ‘泰’로 되어 있다.

[則桃源]: 文粹에서는 ‘則’자가 없다.

[超升]: ‘升’이 陸本·郭本<sup>63)</sup>·全唐文에서는 ‘昇’으로 되어 있고, 何校陸本에서는 ‘昇’을 ‘升’으로 고쳐 놓았다.

일찍이 祖龍인 진시황은 옛 습속을 없애고 형벌을 엄하게 하고 가혹하게 하여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으니 백성들은 큰 불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삼분, 오전의 고서들은 불타 차가운 재가 되었습니다. 장성을 축조하고 아방궁을 만들고 제후들을 병탄하고 영웅호걸들을 살육하였습니다. 자신은 공이 복희씨보다 높으며 나라가 만세토록 영원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운무에 오르고 신선되기를 구하려고 태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내려 올 때 비바람이 갑자기 몰아쳤습니다. 비록 소나무 다섯 그루가 (진시황이 비바람을 피하도록 하여) 직위를 얻어서 초목이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주 간의 만물이 법도에 어긋나고 예의와 형벌 또한 느슨해지자, 商山四皓는 남산에 은둔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魯仲連은 동해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화원으로 세상의 난을 피해간 사람들은 塵世를 초탈하여 이상세계로 간 선각자라 할 수 있습니다. 사슴이라고 올바르게 말한 선비들은 목을 늘어놓고 함께 죽었는데도 우리의 무리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二翁耽老氏之言,<sup>64)</sup> 繼少卿之作,<sup>65)</sup> 文以述大雅,<sup>66)</sup> 道以通至精,<sup>67)</sup> 卷舒天

62) 黨: 무리, 마을, 일가. 黨은 고대의 거민조직으로 고대에는 5백 집이 一黨이었다. 여기에서는 무리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漢書·食貨志》에서 “오족이 당이 된다(五族爲黨.)”라고 하였다. ○之: 대명사.

63) 《四部叢刊》을 영인한 郭雲鵬의 《分類補注李太白詩》 30卷.

地之心,<sup>68)</sup> 脫落神仙之境. 武陵遺跡,<sup>69)</sup> 可得而窺焉. 問津利往,<sup>70)</sup> 水引漁者, 苑藏仙谿, 春風不知從來, 落英何許流出?<sup>71)</sup> 石洞來入, 晨光盡開. 有良田名池, 竹果森列. 三十六洞,<sup>72)</sup> 別爲一天耶?<sup>73)</sup> 今扁舟而行,<sup>74)</sup> 然笑謝人世.<sup>75)</sup> 阡陌未改, 古人依然. 白雲何時而歸來? 青山一去而誰往?<sup>76)</sup> 諸公賦桃源以美之.

- 64) 老氏之言: 노자 《도덕경》을 가리킨다.
- 65) 少卿: 西漢 李陵의 字이다. 李陵에게는 《文選》 권29에 실린 <與蘇武> 시 3수가 있다. 王琦는 “노자의 말, 이릉의 작품은 모두 이씨의 일에 사용됨에 적절하다(老氏之言, 少卿之作, 俱切李氏事用.)”라고 하였다.
- 66) 述: ‘짓다의 뜻도 있지만 述而不作的 경우처럼 ‘전하다’의 뜻으로 보았다.
- 67) 至精: 대단히 신묘하고 형체가 보이지 않는 상태.
- 68) 卷舒: 오므리고 펴다. 《淮南子·原道訓》의 “펼쳐 놓으면 사방 천지를 덮고, 오므려 놓으면 한 손아귀에도 차지 못한다(舒之輒於六合, 卷之不盈於一握.)”에 그 용례가 있다.
- 69) 武陵遺跡: 桃花源이 武陵에 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武陵遺跡이라고 칭하였다. 陶潛의 <桃花源記>에서 “진 태원 연간에 한 무릉 사람이 고기 잡는 것을 생업으로 하고 있었다. 개울을 따라 가다가 길의 멀고 가까움을 잊어 버렸다.……(晉太元中, 武陵人捕魚爲業. 緣溪行, 忘路之遠近.……)”라고 하였는데, 이로 인해 후세 사람들이 도화원은 무릉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武德 때 다시 朗州가 되었는데, 모두 武陵縣 관할이었다(武陵, 漢臨沅縣地, 屬武陵郡.……武德復爲朗州, 皆治於武陵縣.)”라고 하였다. 이백의 시 <當塗趙炎少府粉圖山水歌>의 “채색의 벽화가 어찌 진귀할 만한가? 진실한 산이 우리 몸을 온전하게 할 수 있으니, 그대 공이 이루어지면 옷 떨치고 가세. 활짝 웃고 있는 무릉의 도화 있는 곳으로(五色粉圖安足珍, 眞山可以全吾身, 若待功成拂衣去, 武陵桃花笑殺人.)”에서는 ‘武陵桃花’라고 표현하고 있다.
- 70) 問津: 원래 뜻은 ‘나루터 가는 길을 묻다’이나 여기에서는 ‘찾아 나서다’의 뜻이다. ○利: 날래다.
- 71) 何許: 어느 곳.
- 72) 三十六洞: 도가에서 말하는 신선이 사는 36곳.
- 73) 別爲一天耶: 별유천지. 《述異記》下에서 “인간 세상의 36洞天 중, 이름을 아는 것은 10개 뿐이고, 나머지 26洞天은 《九微志》에 나온다(人間三十六洞天, 知名者十耳, 餘二十六天, 出《九微志》.)”라고 하였다.
- 74) 扁舟: 작은 배. 《史記·貨殖列傳》에 “范蠡가 會稽의 치욕을 씻고 나서……이에 작은 배를 타고, 강호를 떠다녔다(范蠡旣雪會稽之恥……乃乘扁舟, 浮於江湖.)”에 그 용례가 있는데, 이로써 볼 때, 이백이 十七翁과 二十四翁의 떠남이 마치 인간 세상과 작별하고 작은 배를 타고 강호를 떠다녔다고 하는 范蠡의 떠남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5) 謝: 작별하다.
- 76) 白雲何時而歸來? 青山一去而誰往?: 白雲과 青山은 엄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통 ‘青山白雲人’이라고 한다. ○誰往: 어느 곳으로 가다.

## &lt;校記&gt;

[耽老氏]: ‘耽’이 陸本에서는 ‘眈’으로 되어 있다. 詹鐸은 ‘耽’이 옳다고 한다.

[苑藏]: ‘苑’이 咸本과 文粹에서 ‘花’로 되어 있다. 何校陸本에서는 ‘苑’을 ‘花’로 고쳐 놓았다.

[然笑謝]: 郭本·文粹·王本<sup>77)</sup>·全唐文에는 ‘然’자가 없다. 何校陸本の 批文에서는 “‘然’자는 ‘衍’으로 짐작된다(然字疑衍.)”라고 하였다.

두 옹께서는 노자의 도덕경을 좋아하였고, 李陵의 작품을 계승하였습니다. 글로써는 대아를 전하였고, 도는 형체가 보이지 않는 지극하게 신묘한 상태에 통하였습니다. 천지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오므렸다가 폈다가 하며, 신선이 사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옹께서는 무릉도원, 그곳으로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 나서서 날래게 가면, 물은 어부를 인도하고, 동산은 신선 계곡에 숨어 있습니다. 봄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모르고, 떨어지는 꽃은 어디에서 물에 뚱뚱 떠서 흘러나오는지 모릅니다. 동굴을 들어갔다 나오면 새벽의 빛이 모두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름진 전답과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대나무와 과실나무가 뻑뻑이 늘어져 있습니다. 신선의 거주지이며, 별유천지입니다. 지금 작은 배로 가지만, 인간 세상과 웃으면서 작별합니다. 발 사이의 길은 고쳐져 있지 않을 것이고, 옛사람들은 여전할 것입니다. 흰 구름은 언제 쫓 돌아오는지? 청산은 한 번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은 도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지어 그것을 예찬해 보십시오.

www.kci.go.kr

77) 乾隆間(서기 1736년-1796년)에 출판된 王琦가 주석을 한 《李太白文集》 36卷 및 1977년 中華書局的 조판본 《李太白全集》.



### 3. 해설 및 결론

이백은 開元22년(734) 봄, 襄陽을 떠돌면서 韓朝宗에게 천거를 부탁하였지만 거절당하자 마음에 울분이 쌓인 상태에서 江夏에 이르렀다. 江夏에서 마침 東都 낙양으로 곡식을 운반하는 책무를 맡고 있는 張承祖를 만났다. 張承祖를 전별하는 연회에서 이백은 <暮春於江夏送張祖監丞之東都序>를 지었다. 이 글에서 이백은 자신이 재주를 갖고 있지만 시운이 없고, 壯志를 가지고 있지만 펼칠 수 없는 憂憤 및 君門이 구중으로 되어 있고, 보국할 길 없는 고민을 서술하였다. 문장에는 이백의 은거에 대한 생각도 드러났지만, 주로 벼슬에 나아갈 길 없는 곤혹과 벼슬하기 어려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였다.

이 서문은 전편이 송별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두 개의 층차로 나누어 그것을 서술하였다. 하나는 심회를 서술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아서 벼슬할 길 없고, 선도를 배웠지만 이루지 못한 고민을 서술하였다. 하나는 전별을 중심으로 삼아서 張承祖가 조운의 책무를 맡아서 동도 낙양으로 떠나려고 하자, 전별연을 열고, 시를 지어 멀리 떠나보내는 장면을 서술하였다.

<暮春於江夏送張祖監丞之東都序>은 내용상 3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제1 단락(“籲咄哉”~“且樂船中”)에서 이백은 자신이 억울하게 뜻을 얻지 못한 원통함을 서술하였다. 이것은 일반 贈序에서 전송을 받는 사람을 묘사대상으로 하는 것이 관례인 것과는 다르다. 문장 가운데 劉表로 韓祖宗을, 禰衡으로 자신을 비유하였는데, 비유가 매우 가깝다. 그러나 서문은 결국 전별을 위하여 쓴 것이기 때문에 필봉을 바꾸어 賀循이 張翰을 만난 전고를 들어서 자신이 장승조를 만난 기쁨을 표현하였다.

제2단락(“達人張侯”~“餘實不鬼於古人也”)은 못 사람들이 장승조를 전별하는 연유를 서술하였다. 그는 먼저 장승조의 품격·좋아함·관직을 서술하고 그를 ‘達人’·‘大雅君子’ 등으로 칭송하였다. 비록 장승조에 대한 성정을 분명하게 말



하지는 않았지만, “談玄賦詩, 連興數月, 醉盡花柳, 賞窮江山” 등을 통해 그의 풍모를 짐작할 수 있다. 장승조가 조운의 임무로 반드시 남경으로 떠나야하는 이별의 아쉬운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 그것을 정면으로 묘사하지 않고 당시의 정경묘사 속에 그 감정을 드러내었다(“煙景晩色, 慘爲愁容”). 이별의 아쉬움 속에서도 또한 장승조를 위한 전별연의 흥취, 풍성, 화락을 묘사하였다.

제3단락(“揚袂遠別”~“無乃闕乎”)은 장승조가 일찍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이백은 수많은 서술을 생략하고 ‘簡約’의 수사를 발휘하여 ‘揚袂’로써 송별시의 贈言[선사하는 말]과 광경을 총괄하였으며, 수많은 말을 생략하고 ‘何時歸來’로써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마음을 극진하게 표현하였다. 이백은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또한 張翰의 고사를 인용, 장한을 장승조에 비유하여 그가 조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문장의 말미 “詩可贈遠, 無乃闕乎”는 서문을 쓰게 된 목적을 설명한 것이다.

전편의 문자가 ‘簡約’하고 駢儷體가 많다. 특히 전고를 취하여 비유함에 있어 매우 동질성이 높는데, 개인의 불우를 암시하면서 분만의 격정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전별에 부합하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심정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奉錢十七翁二十四翁尋桃花源序>의 창작 연대에 대하여 安旗는 개원 24년(736년)에, 詹鏞은 개원 22년(734년)에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 서문은 두 웅과 도화원을 제재로 하고 있는데, 전체는 진시황의 엄혹한 형벌, 가혹한 정치와 陶淵明의 도화원 세계를 교묘하게 결합시켜, 별유천지의 人間仙境을 만들었다. 전체 문장은 도연명의 <桃花源詩并記>에 의거하여, 전반에서는 秦世의 가혹한 정치, 그 가운데에 올바르게 직언하는 선비가 있고, 세상을 피하여 은둔하는 선각이 있음을 말하였다. 후반에서는 두 웅을 도화원의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비유하였다. 그러나 도연명과 이백의 묘사 각도가 다른 점은 도연명은 무릉대수와 南陽의 劉子驥가 도화원을 찾지 못했다고 하였지만, 이백은 두 웅은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이 서문은 송별을 주제로 하며, ‘도화원’으로 전체 문장을 관통시켰다. 전체

문장은 두 개의 층차로 구분된다. 하나는 秦 왕조의 苛政을 서술하며, 진시황의 嚴刑, 분서, 살벌함, 봉선의 각종 행위를 말하고, 난세에 처한 사람들이 선택한 다른 길을 예시하였다. 이는 두 옹이 도화원을 찾아가는 것을 위하여 마련한 포석이다. 하나는 두 옹의 심지 및 도화원 유래, 경치를 서술하고 두 옹이 천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신선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릉도원의 유적을 찾을 수 있으며, 그가 떠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시를 지어 그것을 찬미함을 말하였다.

이 서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단락(“昔祖龍滅古道”~“非吾黨之謂乎?”)은 진시황의 폭정을 서술하고, 이로써 이백 당시 사람들의 두 종류의 선택과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음을 반영하였다. 이백은 두 종류의 선택과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대비시켰는데, 두 옹을 ‘先覺’, 자신을 ‘指鹿之儔’라고 비유하였다. 이것은 이백이 세속공명을 잊지 못하면서도 또한 도화원과 같은 이상세계를 동경함을 나타낸 것이다.

제2단락(“二翁耽老氏之言”~“諸公賦桃源以美之”)은 두 옹의 좋아함과 품격을 서술하고 또한 도화원의 경치를 묘사하였다. 두 옹은 노자의 도를 좋아하고 문은 대아를 전하고 도는 정수를 통달하고, 천지의 마음, 신선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화원의 유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백은 두 옹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부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時世를 비판하는 내재의식이 반영되었다. 두 옹이 당시의 시대를 등지고 도화원을 찾는 이유는 바로 秦 나라 때 현자들이 진시황의 苛政을 피해 세상을 등진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牛寶彤도 “<奉餞十七翁二十四翁尋桃花源序>가운데에서 十七翁·二十四翁이 ‘樂土’를 향하여 가며 도화원을 찾아가는 것을 묘사했지만, 문장을 통해서 다른 방면에서는 唐代 사회의 폭란과 암흑을 반영한 것이다”<sup>78)</sup>라고 하였다. 그는 또 이 서문은 “문장은 표면적으로는 두 옹이 도화원을 찾아가는 것을 묘사하였지만, 사실은 그 기탁한 뜻은 말하지 않아도 분명하니, 그 뜻은 時世를 비판한 것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옹이 뭇 하

78) 牛寶彤 主編, 《李白文選》(北京: 學苑出版社, 1989), 6쪽.

러 도화원을 찾겠는가” 라고 하였다.<sup>79)</sup>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이백은 현종의 시대를 진시황의 시대에 비유하고 있다. 때문에 두 웅이 세상을 피해서 도화원을 찾아가는 것이다. 문장의 말미에서는 도화원으로 시를 지어 그를 찬미하는 것을 본 서문의 목적으로 밝혔다.

이 글의 언어는 청려하고 변문과 산문을 서로 엮었으며, 송별의 서술 속에 시대를 비판하는 논조를 함유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색이다.

#### < 參考文獻 >

- 王 琦, 《李太白全集》, 北京: 中華書局, 1977.
- 郁賢皓, 《李白叢考》, 陝西: 陝西人民出版社, 1982.
- 詹 鏞, 《李白詩文繫年》,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
- 牛寶彤, 《李白文選》, 北京: 學苑出版社, 1989.
- 安 旗, 《李白全集編年注釋》, 四川: 巴蜀書社, 1990.
- 李 白, 《李太白文集》(宋蜀刻本唐人集叢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 詹 鏞,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 謝育爭 著, 《李白散文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1998.
- 郁賢皓 注譯, 《新譯李白文集》, 臺北: 三民書局, 2017.
- 朱金城, <論李白的散文>, 《李白學刊》 第1輯, 1987.
- 林心治, <隨唐五代的巴蜀散文(三)>, 《渝州大學學報》 第18卷 第2期, 2001.
- 鄧小軍, <李白從璘前前後後>,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52卷 第5期, 2015.
- 申夏閔, <李白散文譯註(I) - 書類「上安州裴長史書」>, 《中國語文論譯叢刊》, 서울: 韓國어문논역학회, 제16집, 2010.
- 신정수, <李白散文研究>, 서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79) 위의 책. 16쪽.

< Abstract >

A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Li bai's <Late spring, written as Zhang Chengzu goes from Jiangxia to Luoyang> and <Shiqiweng and Ershisiweng courteously farewell on their way to Paradise>

Cho, Sung-chun · Cho, Deuk-chang

This paper translates and explains the two proses of Li Bai. The first prose <Late spring, written as Zhang Chengzu goes from Jiangxia to Luoyang> is about the farewell of Zhang Chengzu, who is departing far away; Li Bai recalls his sorrow of having talent but not being able to live in the right time. This prose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agraphs. The first paragraph shows that at first he intended to be a Taoist hermit with miraculous powers but couldn't; then, he laments that he has talent but has not been able to live in the right time and finally, he gets pleased to be able to meet a friend who can understand him. The second paragraph firstly describes the scene where Zhang Chengzu carries the national tax and then describes the farewell of Zhang Chengzu who is departing far away. The third paragraph shows that Li Bai will serve delicious food when Zhang Chengzu returns.

The second prose <Shiqiweng and Ershisiweng courteously farewell on their way to Paradise> reveals the feelings of Li Bai, who is sending his friend far away at the same time desires to dwell in the forest. This prose can be divided into two paragraphs. The first paragraph describes the tyranny of Qin Shihuang and praises those who have evacuated to the Paradise (Shangri-La) as pioneers. The second paragraph describes the contents of the <Story of the Peach Blossom Valley> by Tao Yuanming of which praises the appearance of the Paradise (Shangri-La) and farewells to friends who are going far away.

Key words: Li Bai, prose, translation, annotation, Zhang Chengzu, Paradise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10. 24.	2017. 11. 27.	2017. 12. 10.	2017. 12. 15.	2017. 12. 31